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과 더불어, 사람의 심령에 증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서만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완전히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성장학파의 방법론

김 형 규*

◇ 목 차 ◇

- 서 론
- 본 론
 - 1. 사회적 요인
 - 2. 접근의 어려움
 - 3. 형성 과정
 - 4. 방법론의 문제
 - 5. 교회 성장학이 제시한 2가지 원리
 - 1) 동질성의 원리
 - 2) 수용성의 원리
- 결 론

서 론

교회성장을 위한 과학적인 연구와 접근은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서야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침체해 가는 백인 교회의 회개와 몸부림의 산물이며 교회의 침체라는 문제의 해결을 과학에서 찾고자 했다는 점에서 많은 참신함과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복음주의 선교사들의 노력의 열매이며 그 목표가 지상명령(마28. 19, 20) 수행이라는 단일성에 근원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운동이다.

한국교회는 갑자기 돌풍처럼 불어 닥치는 이 운동의 물결에 어느 사이에 벌써 휩싸여 있을 뿐 아니라, 이 운동의 이론을 위한 시험대가 되어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운동의 토대가 되는 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의 교회성장학파는 McGavran을 중심으로한 운동 안팎의 관련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 조교수, 어학전공

1. 사회적 요인

교회 성장학은 1970년대에 미국에서 두드러지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진 학문이다. 물론 그 전에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다.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계속하여 성장해 왔다. 1970년대 이전에는 교회는 교리와 영적생활에 보다 더 관심을 가졌고 선교의 방법론이 과학적으로 다루어지는 실천 신학 분야에는 비교적 연구가 적었다. 겨우 지난 십여년 동안에 교회성장학이 공적인 그리고 학문적인 접근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다. 교회성장학이 특히 70년대에 미국에서 발달하게 된 원인은 미국의 특수성에서 찾을 수 있다. 70년대의 미국 교회는 교회 내외적인 요인으로 과거와 같은 정도의 존경과 신임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그것이 나타나는데 교회에 관한 통계는 전면적인 하락은 보여준다. 교인수, 출석교인수, 헌금, 목사지원자, 교회건물등 70년대의 종교적인 생활은 실망과 퇴보가 그 특색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가 성장했다는 소식은 미국 내외에 있는 작은 교회들, 성장이 정지되었거나 퇴보하는 교회들을 자극했다. 그 결과 새로운 관심이 교회성장학 운동에 쏠리기 시작한 것이다.

교회성장학의 현상은 미국 사회의 몇가지 경향에 대한 교회의 반응이다. 첫째로, 이 사회는 교육내용의 계수적 분석과 교육성과의 통계적 평가에 몰두해 있다. 그들은 표준평가 백분율 중간 스코어 등의 개념을 교육의 효과 측정에도 도입했다. 따라서 미국 사람들이 교회도 숫자로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둘째로, 조직이나 기관의 효율성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교회도 그 확장력과 업무실적이라는 각도에서 연구되어야 하도록 자극을 받았다. 셋째로, 미국내에서 대량전달이 폭발적인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언론 기관이나 보도매체는 교회의 침체와 성장에도 초점을 맞추는 때가 되었다.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질문은 “왜 어떤 교회는 성장하지만 어떤 교회는 쇠퇴하는가”이다. 이러한 사회환경적인 요인이 특히 미국에서 교회성장학을 발전시킨 것이다.

2. 접근의 어려움

최근에 교회의 선교에 관련하여 일어난 여러가지 학설중 신학적으로 평가하기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이 교회성장학 운동이다. 이 학파의 테두라고 할 수 있는 Donald McGavran을 현대 선교의 “등애(쇠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성가시고 귀찮은 존재라는 뜻이다. 그는 Uppsala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W. C. C는 20억을 배신하는 모임이라고 지적했고 또 보수주의 선교부 역시 자유주의자들 처럼 흐릿하다고 서슴지 않고 말했기 때문에 양쪽 진영 모두 그를 쇠파리처럼 귀찮게 생각했다. 북미주의 보수적인 복음주의자들은 그에 대하여 냉담한 자세를 가졌으며 특히 개인의 회심을 강

1) Jack shepherd, Continuity and Change in Christian Mission, in A. R. Tippett, ed, God, Man and Church Growth, G. R. Eerdmans, 1973. p. 71

조하는 선교부들은 교회성장학이 말하는 제도적 교회의 설 땅을 허용치 않았다. 교회 일치 운동주의자들은 이 교회성장 학파가 가난, 질병, 불의를 근절시키는 교회의 수평적 책임을 무시한다고 보고 회의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교회성장학파는 그 자체를 복음주의 개신교 진영에 넣는다. 교회성장학파는 인류학(지금까지 모든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금기시 되는 주제) 현대의 기술, 문화의 다양성 그리고 개신교 우익에서는 쉽게 받아 들이지 못하는 집단개종의 문제등에 강조점을 둔다. 그래서 교회성장운동의 평가에서 우리는 어떤 진영에 넣어서 편리하게 분류할 수 없으므로 어려움을 느낀다.²⁾

교회성장학파의 평가의 어려움은 많은 교회성장학 이론이 현지연구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차적으로 현지에서의 선교의 방법문제와 내용문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학적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많은 선교사들은 교회성장학의 이론을 가볍게 실제적 근거에서 채택한다. 교회성장학에서 방법론 “how”의 문제는 실제 선교 사역에서 너무나 흥미있고 또 도움이 되면서 원하는 결과를 이루어 주기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그것을 택한다.

그러나 이 이론이 기초한 가정이나 기본적인 근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 교회성장학이 말하는 성공이란 개념은 과연 성경적인가. 이론과 실제와의 긴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급격한 숫자적 증가에 뒤따르는 거룩과 성화과정의 결여는 어떻게 볼 것인가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3. 형성 과정

Donald Anderson McGavran(1897-), 그는 삼대째 계속되는 선교사의 집안출신으로 인도에서 출생했다. 교육경력은 주로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신학은 예일에서 그리고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선교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끝내었다. 1923년 선교사로 인도에 다시 돌아갔으나 교육이 그의 주요선교사업이었다. India Mission의 기독교 교육 총책임자가 되어서 교육, 의료, 농어촌 전도에 관한 기구의 행정편을 주로 맡아서 일했다. 1936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그후 31년간 The United Christian Missioinary Society of Christian Church Disciples of Christ를 맡아서 봉사했다.³⁾

인도의 방언들 특히 힌디어와 치피드가리찬 방언을 활용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그를 항상 괴롭힌 것은 댓가에 비하여는 너무나 미미한 수확뿐이라는 사실이었다. 인도에서의 영적 수확은 노력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 없는 것이었다. 1954년부터는 McGavran선교부는 그에게 Asia, Africa

2) Ibid. p. 65.

3) Donald Anderson McGavran, How Church Grow : The New Frontiers of Mission (New York : Friendship pres, 1976) p. 189.

에서 교회들의 성장원인을 조사하는 일을 맡겼다.⁴⁾

그는 더 나은 추수를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 연구하며 이 두 지역을 두루 살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선교전략을 갖추게 되었다. 1957년에 Indianapolis에 있는 College of Missions의 교수가 되어 여러 기관의 기금으로 선교학을 가르쳤다. 그는 Philips University, Butler University, Chritian Theological Seminary, the Drake University Divnity School, Bethany College, Northwestern Christian College,와 the Pacific School of Religion을 방문하여 그의 새로운 선교 전략을 강연했다. 또한 미국의 여러 곳과 Costa Rica, Mexico에서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1961년 Oregon Eugene에 있는 Northwestern Christian College의 학문적인 한계 내에서 그는 교회성장학교를 시작했다. 여기서 그는 A. R. Tippett을 만나게 되며 그들은 계속하여 깊은 동지의 유대를 갖는다.⁵⁾

이 둘의 학문적인 사이는 너무나 밀접했기 때문에 Tippett는 “우리에게서 서로 다른 공헌을 한 점을 나누기는 어렵다. 내 생각으로 우리 둘은 서로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받은 것 같다”⁶⁾고 했다. 이 시기에 그의 교회성장학에 대한 관점이 더욱 발달하고 성숙했다.

Eugene에서의 여러 해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마도 1963년 Canada에서 열렸던 W. C. C가 후원한 Iberville협의회 참석이였을 것이다.⁷⁾ 그의 Eugene의 시대는 Posadena에 교회성장학교가 생기면서 끝이 난다.

1965년 McGavran은 SWM-ICG(세계선교대학-교회성장학교)의 초대 학장이 된다.

1965~1971 까지 McGavran이 학장이었을때를 Pickelt는 이렇게 말한다.

McGavran체제의 5년 동안은 여러면에서 형성기였다. 학교 건물을 세우고 ICG의 옛날 모형을 개선하며, 학위과정을 실시하고, 교수진과 교과과정을 확장하여 모든 관련된 양상을 인정하며 새로운 선교시대에서 교회성장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모든 체질을 형제와 같은 공동체의 그것으로 바꾸는 일이었다.

이 학교는 이 위대한 사람의 끈기, 행정의 능력, 경건이라는 인격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⁸⁾ 그는 교회성장학이 개발해야만 한다고 느꼈던 분야의 전공자들을 학교의 교수진으로 채워 나갔다. 예를 들면 인류학, 연장훈련, 연구방법, 부족종교의 현상학, 문화와 지도자론, 토착언어학 등이다.⁹⁾

McGavran은 먼저 A. R. Tippett(인류학)을 청빙했고 그 뒤에 Ralph Winter(선교

사및 신학연장교육) Charles Kraft(중족종교와 토착신학의 인류학), C. Peter Wagner(선교전략) J. Edwin Orr(부흥운동), Arthur Glasser(선교신학) 등이다. 지리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모여든 셈이다.

McGavran은 동아시아, Tippett은 대양주, Kraft는 아프리카, Glasser는 중국및 동아시아, Wagner와 Winter는 라틴 아메리카, J. Edwin Orr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등이다.

이들은 또한 오랜 세월을 선교사 생활해 왔던 사람들이다.

그는 또한 출판에도 많은 정력을 기울여서 교회성장학과를 온 세계에 알렸다. 그 자신의 출판물을 보면 Bridges of God, a Study of Missions(1955), Church Growth and Group Conversion(1955), How Churches Grow: The New Frontiers of Mission(1959) Church Growth in Mexico(1963), Church Growth and Christian Mission(1965), Understanding church Growth(1970), Crucial Issues in Missions Tomorrow(1972), Eye of the Storm: The Great Debate in Mission(1972), How to Grow a church(1973), Ten steps for church Growth(공 저, 1977) Ethnic Realities and the Church: Lessons from India(1979)등이다.

그가 1965년 68세의 고령으로 세계선교 대학원을 창설하고 계속 학장의 일을 하면서 이루어 낸 노작들이 많다. 교회성장학을 위한 새로운 연구와 새로운 차원에서의 적용을 계속하는 중에도 McGavran은 초기의 의문을 풀어 보려는 시도는 일관성있게 진행된다. 그것은 그의 젊은 시절부터 선교사로서의 양심에 부담을 주어 온 것이다. 중부 인도에서 그렇게도 많은 선교부들이 그렇게도 많은 노력과 재정을 쏟는데도 회개하여 기독교인이 되는 숫자는 그렇게도 적은가 하는 문제이다.

McGavran의 소원인 훌륭한 통계조사, 특히 분석적인 인류학적 분석, 낭만적인 목표 설정, 빠른 교회의 성장은 대학원이 설립된지 얼마 안되는 기간 동안에 놀라운 정도로 달성된 셈이다.

이 운동을 McGavran과 동일한 것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교회성장학의 연구는 Dr. McGavran의 공헌이라고 한 Harvey conn의 지적은 적절한 것이다.

분명한 목표, 그것을 향한 열정적인 삶, 이러한 태도가 그의 장점으로 나타난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말하면서 뚜렷한 목표없는 삶을 살아가는 미국과 구라파의 교회의 일반적인 생활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그의 선교활동과 학술활동은 많은 사람을 회심시키는 일 -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그는 실제와 현상 가운데서 방법론을 강구하는 경향이 강하기는 해도 그의 저서와 선교학적인 논쟁의 근거는 성경의 권위에 의존해 있다. 그가 선교의 개념을 주로 교회성장에 적용하는데는 인도의 영향이 지대하다. McGavran은 전통적 용어인 선교학과 전도학을 교

4) A. R. Tippett, edit., God, Man, p. 21.

5) A. R. Tippett은 1977. 6. 은퇴.

6) A. R. Tippett, edit, God, Man, pp24. and 32-33.

7) Ibid.

8) Ibid.

9) Ibid.

회성장이란 용어로 바꾸었는데 그 이유는 자유주의자들이 선교라는 말을 지나치게 사용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도의 선교사 30년의 경험에서 전도나 선교와 같은 말들이 성경적 의미와는 다르게 사용됨을 보고 자유주의자들의 개념과 분리하기 위하여 이 용어를 채택한 것 같다. 그는 선교의 정의를 교회성장으로 규정함으로 선교와 전도와 교회 성장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보이지만 사실 그의 교회성장학은 전도학 이외에도 목회학 일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포괄성이 있다.¹⁰⁾

그는 Understanding Church Growth에서 선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며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하며 그의 몸된 교회의 소속회원이 되게 하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업이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상명령에 충실 하고자 하며 제자를 삼으라는 그 분부 수행에 대한 강조를 일관성있게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점에서 그와 고전적 선교의 개념과의 일치점을 찾게 된다. 이러한 McGavran의 전도에 대한 정의는 전도의 목적이 뚜렷이 표현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는 전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하고 그의 몸된 교회의 소속 회원이 되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제자로 삼아 양육하는 그의 교회성장학의 한 측면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

여기에 비교하기 위하여 다른 두 가지 유명한 전도의 정의를 살펴보면 George W. Peter은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절하고 알기쉬운 말로, 기독교 신자로 만들려는 명확한 목적으로 설득력 있는 태도로 권위있게 전하는 것이다. 그것은 결심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제시—통찰—침투의 대결이다. 그것은 평결을 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파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하나님과 교회의 능력과 목적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없으나 설득과 회심이라는 기본적인 것이 강조되어 있다. 그러나, 전파하는 것만이 전도의 목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그 전파의 형태를 강조하고 있다.

1918년 영국교회의 전도에 대한 “대주교회의”의 정의는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사람들이 그 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 그 분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 들이게 하며 그분의 교회와 교통하는 중에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정의에 대하여 J. I. Packer교수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며”로 만들어서 전도 활동이 목적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설명한다.¹¹⁾

10)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교회성장론」 (서울: 정음출판사, 1983), p. 227.

11) James J. Packer, What is Evangelism, Theological perspectives on church Growth, Harvie M. Conn ed.,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Phillipsbery 1976. p. 98.

4. 방법론의 문제

교회성장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결과이다.

이 점을 이 운동의 중심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McGavran이나 Wagner는 그들의 글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Wagner는 “만일 우리가 이러한 교회들을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 연구해 보면 하나님과 그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더 많이 알 수 있다”¹²⁾ 추수하는 사람이 추수과정을 연구해 보아서 어떤 유익이 있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 같이 30배, 50배, 100배의 생산이 있는 곳을 살펴보면 더 많이 배울 것이다. 따라서 어떤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성장하는 교회를 연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을 것이다.¹³⁾

받은 무르익어 있는데 왜 창고는 비어있는가 하는 질문을 앵겔 노턴은 현대 교회의 추수기구는 날이 없는 낫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날이 선 낫은 무엇인가? “기독교 조직체가 가지고 있는 날이 선 낫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고, 믿음 안에서 성장시켜가는 연구를 기초한 성령 인도의 전략이다.”¹⁴⁾라고 했다.

책의 결론에서 이들의 단정은 이 전략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의하여 계획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에 대하여 Wagner교수가 그의 강의실의 교재로 채택한 Planning Strategies for world Evangelization에서 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전략은 전술과는 다르다. 사람은 사업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그 기초가 되는 원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전략의 영역이다. 또 다른 사람은 그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맡는다. 전술은 선택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도구, 인원, 방법등의 세부적인 것을 말한다. 전술은 선교사업의 수행을 책임진 사람들에게 관한 끊임없는 연구여야 한다. 그것은 없어서는 안될 일이지만 세계선교가 기초한 원리를 연구하고 전체적인 작업의 합리성을 연구하는 것과는 다르다.

누구나 조직체마다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인 전략을 갖고 있다. 바울도 전략을 갖고 있었다. (행17:2) 바울은 습관을 좇아 안식일에 회당에 갔다. 그의 전략은 큰 도시에 가서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 예수를 증거하고 그것이 순조롭게 사람들에게 이르도록 하는 것이다. 신자들로서 전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찾도록 요구하며 성령의 뜻을 추구하도록 한다.

전략은 미래를 기대하기 위한 시도이다. 전략은 계획이나 목표와 같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표백이며 그 미래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의 표현이다. 전

12) Wagner, Your Church can grow, Glendale, California: Regal Books, 1976 p. 28.

13) Ibid

14) James F. Engel and H. Wilbert Norton, What's gone wrong with the Harvest? Communication Strategy for the church and world Evangelism, Grand Rapids, Michigan: Zandwaan 1975, p. 14.

략은 우리의 의도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이다.

Wagner의 정의는 전략이란 특정한 단체가 결정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동의한 수단이다. 좋은 전략 특수한 전술은 물론 광범위한 원리를 갖고 있어야 하며 명확한 목표를 잃지 않아야 한다.

선교 전략은 성령을 대체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적절한 전략은 성령으로 영감되고 성령이 주관하는 것이다. 성령과 경쟁적인 입장이기 보다는 전략은 성령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한다.¹⁵⁾

교회성장학을 하는 사람은 성공에 깊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며 어떤 댓가를 지불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한 교리를 세우는 일에 몰두한다. 그래서 그들은 과학적으로 연구된 재료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실용주의적 사고를 채택하고 있다.

Peter Wagner는 이 점을 분명히 한다.

“실용주의를 영적인 결핍과 관련시키는 것은 일반적인 잘못이다. 실용주의가 변질하며 악한 방법이 사용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생각이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교회성장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바가 아니다. 성경은 결코 은혜가 풍성하도록 죄를 범해도 된다고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금하신 수단을 우리가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 안에서는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한다. 그 외에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용하는 방법이 내가 목적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했다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것은 좋은 방법이다. 만일 반대로 내방법이 목표를 달성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것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정당화 할 수 있는가?”¹⁶⁾

교회성장학의 교회지도자들은 누구나 원리가 모든 교회를 위하여 가치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방법은 근본적으로 변형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Baumann은 방법론과 원리의 차이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한다.

“주의깊게 살펴보라. 서로 무조건 통용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 타문화와 관련된 원리는 특별히 조심스럽게 살펴야 한다. 과업수행 계획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가 절대적이다. 이 둘을 서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¹⁷⁾

여기에 부과하여 그는 두가지를 더 말한다. (1) 어떤 계획도 거룩한 것은 아니라, 구조라는 것은 유용하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한다. (2) 원리만이 거룩하다. 그것은 계획이나 지역성을 초월한다.¹⁸⁾ Donald McGavran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교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마땅히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성장을 볼 수 있도록, 그

15) C. Peter Wagner, *Frontier of Missionary strategy*, Chicago, Illinois, moody press, 1972. pp. 15-16.
 16) Wagner, *Your church can grow*, pp. 136. 137.
 17) Dan Baumann, *All Originally Makes a Dall church* Santa Ana, California : Vision House, 1976. p. 20.
 18) *Ibid*, p. 115.

리고 각각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소들을 볼 수 있도록 자신을 훈련해야만 한다. 그 후에 그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을 단호하게 찾아야 하며 하나님이 인정하여 재가하신 선포와 설득의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¹⁹⁾

다음으로 방법의 사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교회성장선교학의 신학적인 기초는 방법론적인 통찰력과 선교의 원리가 현지 관철과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이후에 완성이 되었다.²⁰⁾

현재의 상황에서 분석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전도사업에서 교회와 교인의 숫자 증가에 집중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것이 교회의 성장을 측정하는 사실상의 척도가 된다. 이러한 식의 양적 강조가 야기시키는 손해는 말할 수 없이 막대하다.²¹⁾

Wagner가 지지하는 것은 교회개혁과 교회성장에서 ‘성공’이라는 실용주의적이고 단기간에 생긴 결석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Wagner의 성공이 계속적인 선교와 전도를 위한 재료나 지침이 될 수 없다. 이것은 더 많은 논쟁의 소리가 있으며 ...”²²⁾

이상과 같이 교회성장학에서는 가견적 성공을 이루기 위한 전략을 강조한다. 추수를 위한 날카로운 낫이라고 하는 이 전략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수행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교회성장학의 대상이 이렇게 현상의 파악 속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성공도 불을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은 모여든 숫자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이 성공이 다음 전략을 위한 재료로 활용한다. Packer교수는 이러한 성공을 가리켜 어찌다가 짧은 시간내에 생겨진 결석이라고 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 전략이 활용되는 전술들을 살펴보자.

5. 교회성장학이 제시한 두 가지원리

교회성장학에서는 성장을 위한 여러가지 원리를 발견하여 활용하고 있다. 그 중 두가지를 들어 방법론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동질성의 원리

동질성(Homogenous)이란 단어는 본래 사회학자인 Alfred Schultz가 사용했던 개념이다. 사회의 한 부분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으로서 서로가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생각하여 평안하게 느끼며 상호이익의 영역이 많은 같은 문화의 소유 상태를 포

19)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 Eerdmans, 1970. p. 162.
 20) Roger S. Greenway, “Reformed Missions and the theology of Church Growth Submitted to the Consultation at Westminster Theological society Philadelphia, March 14~26. 1976. 8. 5.
 21) C. Rene Padilla, *Theology and Mission*, David J. Hesselgroe Eed. Baker Grand Rapids 1978. p. 195.
 22) J. I. Packer, *What is Evangelism in Theological Perspectives on church Growth*, Harvie M. Cann, ed.,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Phillip, 1976. pp. 99. 100.

현한 단어를 말한다.

Men like to become christians without crossing racial, linguistic or class barriers(사람들은 인종적, 언어적, 또는 계급적 경계선을 넘지 않고 기독교인이 되기를 바란다.)²³⁾ 이것은 이 원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말이다.

McGavran의 설명을 따르면 이 원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인간은 그들 자신의 사회 주변에 장벽을 구축한다. 각각의 사회는 생활, 언어, 의복, 일의 양식에서 다른 사회와 구분이 된다. 인류는 모자이크이며 그 한부분마다 그 자체의 구별된 생활이 있고, 그 각각의 생활은 모자이크를 다루는 다른 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스럽지 않는 것일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람들은 신자가 되더라도 외국언어로 행해지는 예배에 참석하기 보다는 자국어로 예배드리는 곳에 모이게 된다. 피부색, 계급, 수입, 교육정도의 동질성이 복음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Orlando Cortas는 이 사상에 대한 the School of World Mission의 몇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이렇게 말한다. 교회성장학운동이 퍼뜨린 전도를 위한 단체적 접근은 큰 세계의 교회에 전도전략에 있어서 새로운 시야를 열어 주었다. 부족이나 종족 사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방법은 지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항상 가족관계 친족관계 관련조직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상호 이해관계에 근거하여 친구를 사귀는 세속사회에서도 동질집단이라는 것은 하나의 실체가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중에서는 단체 전도를 위한 다수 속의 개인이라는 사상 혹은 동질성 교회라는 사상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있어서 가장 적절할 뿐 아니라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다.²⁴⁾ 남침례교에 속한 학자 Belew도 이점에 동의하여 “문화적인 배경과 인간적인 유사성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그 시작에서는 쉬울 경우가 많다.”²⁵⁾고 했다.

이 이론의 필요성과 장점을 P. Wagner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거에 선교사들은 선교지에서 문화적으로 그들의 종족을 배신하도록 그리고 그들의 형제를 버리도록 요구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배신한다는 감정을 유발시키지 않고 복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동질집단 단위 선교의 원리이다. 따라서 이 원리는 여러 민족들 사이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수단을 발견하는 도구가 된다. 가능한 많은 사람을 얻어야 더욱 효율적으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그리스도의 주권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 일이 이루어 진다.

동질집단의 원리를 비성경적이라고 할수는 없다. 계7:9에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23) 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82, p. 223.
24) Orlando Cortas, The Church and Its Mission: A Shattering Critique from the Third World, Wheaton, Illinois: tyndale House, 1974 pp. 128, 129.
25) Weadell Belew, Churches and How they grow, Nashcille, Brodman Press 1971, p. 39.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해서 서로 특징을 가진 집단들의 다양성 있는 찬양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동질집단 상호간의 관계는 살롬(전쟁이 없고, 증오, 억압, 착취, 인종차별, 외국인 경멸이 없는), 상호존중 사랑이다.

이렇게 다른 동질집단에 대하여 태도가 바뀌는 것은 성령의 열매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모든 신자들의 동질단위는 서로가 상관 관계가 있다. 따라서 동질집단 원리는 인종차별을 거부하며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나와 같아야 한다는 사상을 부인한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교회가 반드시 백인들의 교회와 꼭 같을 필요는 없다. 모든 동질집단은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으로 자신을 보아야 한다. 이와같은 교회성장학자 Peter Wagner의 설명에서 이 원리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원리는 규범적인 말이기 보다는 현상 관찰의 결과이며 신학적인 가르침은 아니다. 선교방법론의 지침일 뿐이다. 선교의 한계 면에서 볼 때에 이 원리는 불신자들을 제자로 만드는 일에 큰 관련이 있으나 그 뒤에 따르는 양육의 문제에 적용될 소지는 약하다. 따라서 이 원리가 어떤 윤리성을 가지기 보다는 중립적인 것이어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사용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싱가포르에는 말레이시아인 교회, 인도교회, 중국교회, 한국교회가 있으며 프랑스에는 여러 신구교의 교회들 중에 집시들의 교회도 있다. 미국에는 더 많은 인종과 언어에 따른 교회들이 서로 각각 모여서 같은 집단끼리 예배를 드린다. 이러한 다양성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다양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조화를 보게 된다. 세계의 어느 집단 중에서도 새로 생기는 교회는 그 곳의 특징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선교에 도움이 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에 대한 비판은 이론의 근거와 목회에서의 실천면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 이론에 의하면,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 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경계선을 넘지 않고 교인이 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목회자 즉 교회에 나올 사람이면 모든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경계선을 초월하고 서로가 하나되는 마음으로 모이는 것을 주장하는 목회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목회하게 된다는 뜻이 된다. 이것은 결국 교회의 성장이 사회적 구조를 중요시 함을 뜻하고, 사회학 용어인 동질집단이란 언어, 문화, 인종등 서로 같은 부류로 생각되는 사람들이 하나의 그룹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⁶⁾

이 원리에 의하면 전도의 중요한 장애물을 인간의 본질적인 부패, 진리를 싫어하는 마음에 두지 않고 사회문제에 두고 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될 때 자기가 속한 사회의 여러가지 풍속, 습관, 전통 등과 기독교가 상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기를 두려워하는 것인가? 반드시 그렇지 않다. 문화를 극복하는 요소들이

26)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op, cit, p. 231.

또 하나의 기독교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나 있다. 한국에서의 조상에 대한 제사문제가 그 구체적인 예가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동질성 문제 이전에 죄의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사례를 발견하게 된다.

그 외에도 이 원리의 적용상 제약이 되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 한 민족 혹은 집단에서 그들이 갖고 있는 특수한 민족의식 또는 집단의식은 교회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McGavran 역시 그의 교회성장연구에서 민족주의가 교회성장을 가져오는데 대단한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족주의는 성장요인과 저해요인 양쪽 모두가 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독립한 신흥국가들은 강력한 민족주의의식과 함께 반기독교적인 경향을 띄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을 과거에 식민지로 지배했던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 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에게서 민족주의는 교회성장의 저해 요인이다.

그러나 한국은 해방 후에 더욱 기독교의 성장을 누리게 되었다. 한국을 지배해 왔던 나라는 반기독교적인 국가였기 때문에 한국의 민족의식은 기독교를 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서 민족주의는 교회성장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했다. 2차대전 이후의 아시아 아프리카 선교는 한국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황은 민족주의 동질집단을 벗어 나야만 가능한 현실이 되었다.

교회성장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와 비판은 이 동질집단 원리에 있다. 로잔대회에 참석하였던 어느 아프리카 흑인 대표는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동질집단 원리를 새로운 인종차별주의라고 방송할 정도였다.²⁷⁾

영국의 에디 깁스는 동질집단 원리를 변호하기 위하여 Our kind of People을 내어 놓은 Wagner의 잘못된 성경해석을 비판했다. “동질집단의 개념을 정상적인 원리로 돌리기 위하여 신약의 교회도 동질적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한다. 그러한 증거가 신약에 없다. 그의 책 Our kind of People중 제 5장은 가장 큰 약점이다. 신약 어디서나 교회가 동질단위를 설립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특수한 호소와 본문을 인용한다.²⁸⁾

2) 수용성의 원리

특정의 집단이 복음의 Message에 대하여 어떠한 정도로 반응하는가를 수용성이라고 한다. 교회성장학에서는 전도의 전략상 복음에 대한 수용과 저항의 정도를 산출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일이다. 만일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수용적이라고 하면 — 고넬료처럼 그들은 믿을 마음을 이미 갖고 있고 생명의 말씀을 단지 기다리고 있

27)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op, cit, p. 245.

28) 이종윤, 전호진, 나일선, op, cit, p. 245. Citing Eddie Gibbs, I believe in Church Growth Grand Rapids, Eerdmans, 1981. p. 127.

을 뿐이라면 — 어떤 전략이나 방법으로도 큰 수확을 거둘수 있을 것이다. 혹시 잘못이 있어도 곧 바로 잡게 될 것이며 잊어버리게 된다. 반면에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강하게 저항하는 집단이면 대부분의 경우에 최선의 전략이라도 실패하게 된다. 그러나 극단적인 수용집단이나 극단적인 저항집단의 중간에 위치한 집단에서는 전략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좋은 전략에 의하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것이며 빈약한 전략으로는 냉담 혹은 중립의 벽을 뚫지 못할 것이다.

-5 -4 -3 -2 -1 0 +1 +2 +3 +4 +5

기독교 신앙에 대한 수용성 또는 저항성은 많은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²⁹⁾ 예를 들면

1.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는 정도 : 만일 그들 자신의 종교나 미신에서 그들 자신의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대답을 얻고 있으면 그들은 제 2의 종교를 들으려고도, 생각하려고도 않을 것이다.

2. 그들의 나머지 생활이 변화하는 정도 : 고향을 떠나서 새로이 이민한 사람들의 경우는 새로운 생활방식과 사상에 대하여 더욱 개방적이다. 정상적인 자기 집단에서 멀리 떨어진 소수나 과거에 종교에 관련되었던 친구들로 부터 떨어진 소수의 사람들이 개방적이다.

3. 복음전도에 있어서 문화적 이해가 많을수록 수용적인 태도로 유도할 수 있다 :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기독교에 대한 거부 의 대부분은 전도자들이 문화적인 이해를 하지 못한데서 기인했다. 신자가 되기 위하여는 그들의 주체성의 일부를 포기해야 할 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4. 복음전달자의 인물 : 그들이 민족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어디 출신인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청취자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젊고 서구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최선의 전도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5. 복음과 당시 그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유행과의 상대적 적합성 : 관습 중에는 복음이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다 :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숭배에서 돌아서야만 한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어떤 뿌리 깊은 신앙체계는 복음에 대하여 저항적이다. 또한 범죄를 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그렇게 된다.

이 수용성의 사실은 신약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일반 대중들이 바리새인보다 더 수용적이며, 갈릴리인들이 유대인보다 더 수용적이었고,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수용적이었다. (행17: 11)

복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든지 있으며, 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예비

29) Edward R. Dayton/David A. Fraser, p. 178 Planning Strategies for world Evangelization, Grand Rapids Eedmans, 1980.

하셨으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용성의 원리에 맞는 것이다.³⁰⁾

이 수용성의 원리에 의하면 교회는 아직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복음에 관심을 가지는가를 분별하여 그 기회를 잃지 말아야 한다. 참 교회성장의 열쇠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들일 준비가 된 상태에 있다. 사람들이 복음을 수용하고자 할 때에는 설교자의 전달이 미약 하여도 가능하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설교에도 거부 반응을 보인다. 이 점은 이슬람 문화권 내에서의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수용성의 문제는 사회 뿐만 아니라 개인 에게도 적용이 된다.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한 젊은이는 20세 때보다는 12세 때 더욱 그리스도를 잘 받아 들인다.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던 사람도 중병을 앓고 난 후이나 혹은 그가 과거에 가졌던 것을 잃은 후에 더욱 쉽게 주의 제자가 된다.

이 점을 Arthur Glass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에 특별히 역사하는 때가 있다. 그들은 익어 추수할 때가 된다. 이 경험적인 사실이 의도적으로 전략에 연결될 때 하나님은 풍성한 추수라는 결과를 주어 확인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들을 얻고자 하는 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된다.”³¹⁾

현대 과학기술 시대에 들어와서 정령 숭배자들이 그들의 종교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또는 인도의 빈곤 속에서 많은 인도인은 사회적 이유로 즉 계급을 벗어나기 위하여 기독교인이 되기도 했다. 어떤 나라에서는 식민지의 압박으로부터 자유와 독립을 위해 투쟁 하는 과정에서 힘을 얻는 근거로 기독교를 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선교는 이 변화하는 수용성을 잘 분별하여야 하며, 수용성이 높은 때에 기회를 잃지 않고 모든 선교의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세에 따라 변동하는 수용성은 인간성과 사회의 가장 현저한 국면이다. 그것은 도시인과 농촌인, 발전된 사회와 원시적 사회, 교육 받은 자와 문맹자를 구분한다. 그것은 선교의 모든 측면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며 만일 교회 성장이 이해되려면 그것이 광범위 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와 문화적 요소를 연구하여 다수가 반응하는 곳으로 가라는 것이 수용성 원리에 의한 전략이다.

자유주의자들 중에는 이 원리가 숫적 결과를 위하여 특정지역의 사람들에게 선교자원의 집중을 요구하는 점을 들어서 이 점이 그릇된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모든 사람이 동시에 어디서나 선교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교회의 확장

30) Arthur F. Glasser, 맥가 브란의 교회성장론, 간 하배(편), 「교회성장의 신학」 pp. 234~235.
31) D. A.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82. p. 245.

을 목표로 한 나머지 사회 정의에는 무관한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덧붙여 인간이 관찰과 수고와 노력에 의존하며 성령의 역사에 맡기지 않는 점을 비판한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에게서 선교는 교회성장 보다는 훨씬 광범위하다.

수용성의 원리는 선교전략의 재료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선교의 자원은 수용성이 높은 곳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변수가 많은 재료로부터 산출한 결과를 과학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면 신앙 행위보다는 현상의존적인 교회봉사가 되기 쉽다.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이끌림을 받은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에서 판단한 것이기 보다는 아무리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그의 감도높은 영적 청각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인도에 익숙하고 또 민감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보다도 더 높은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갔다. 교회성장학에서 말하는 방법론에 무조건 의존하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인도를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리고 주어진 결론에 항상 자신을 맡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교회성장학이 말하는 전략과 성공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소박한 사람들의 발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대의 선교학은 선교를 속여서 말씀의 본질적인 선포가 사라진 과학의 높으로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전세기의 경건주의나 금세기의 성경중심 신학운동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이틀처럼 하지는 않았다. 믿지 않는 심령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단순히 말씀을 선포한 결과로 땅 위에는 번성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그 자체의 제3세계 선교와 함께 존재해 있다. Nevius의 선교전략이 한국교회성장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고 한 McGavran³²⁾의 생각이 틀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최근에 Samuel H. Moffet는 한국에서의 교회성장의 원인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그의 부친 Dr. Samuel A. Moffet가 반세기 전에 했던 그 대답을 했다.

“북한에 있는 내 아버지의 활동 지역에서 교회의 극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에게 그 비결을 물었다. 내 생각에는 아버지의 그 대답이 그들을 실망시켰을 것 같다. 그것은 너무나 간단했고 너무 경건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버님이 옳았다고 생각 한다. 그의 대답은 ‘몇년 동안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치켜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 나머지 일은 성령이 하셨다’였다.”³³⁾

초대교회는 가난했다. 그 교회는 역사적인 관점도, 세미나도, 책들도, 논문도, 도포도, 컴퓨터도 없었다. 그러나 그 교회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한 주님의 말씀

32) McGavran, Understanding Church Growth, pp. 136~137.
33) Somuel H. Moffet, What Makes the Kroeian Church Grow, The Presayterian Layman, October 1974. p. 4.

을 알고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한 주의 명령을 알고 있었다. 초대교회는 주의 마지막 명령을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알고 입술로 그리고 생명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했다. 우리도 이 일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자.³⁴⁾

결 론

오늘날 한국 교회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 교회성장학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고 있으며 이 교회 성장학이 어떤 의미로는 하나의 시대 유행과 같은 감을 주기도 한다. 교인의 증가를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방법을 전부 동원하는 태도는 신실한 것이며 그 열심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한국 교회도 성경적으로 옳다고 판단되는 점에 대해서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이 성장학 운동을 추진해 가는 사람들 보다 정성을 다 기울인다는 점에서는 조금도 뒤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의 참된 성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래서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대로 죽도록 충성해야 할 것이다.

34) Walter Fravls, *Theology and Mission*, David J. Hesselgrave ed. Baker Grand Rapids, 1978. pp. 208, 209.

참 고 도 서

- 이 중윤, 전호진, 나일선, 「교회 성장론」(서울: 정음출판사, 1983)
 간 하배(편) 「교회 성장의 신학」
 Belew, Weadell, *Churches and How they grow*, Nashville, Brodman Press 1971.
 Baumann, Dan, *all originality Makes a Dull Church*.
 Costas, Orlando, *The Church and its Mission: A Shattering Critique from the Third World* Wheaton, Illinois; Tyndale House, 1974.
 Dayton, Edward R./Fraser, David A., *Planning Strategies for world Evangelization* Grand Rapids Eerdmans, 1980.
 Engel, James F. and H. Wilbert Norton, *What is gone wrong with the Harvest? A Communication Strategy for the church and world Evangelism*, Grand Rapids, Michigan: Eerdmans 1975.
 Fravls, Walter *Theology and Mission*, David J. Hesselgrave ed. Baker, Grand Rapids, 1978.
 Greenway, Roger. S, "Reformed Mission and the Theology of church Growth Submitted to the Consultation at Westminster Theological Society, Philadelphia, March 14~26. 1976.
 McGavran, D. A. *How church Grow: The New Frontiers of Mission*, New York: Friendship press, 1976.
Understanding church Growth, Grand Rapids: Eerdmans, 1970.
 Moffet, H Samuel, *What Makes the Korean Church Grow*, The Presbyterian Layman, October 1974.
 Packer, J. I, *What is Evangelizm in Theological Perspective on church Growth*, Harvie M. conn, ed.,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 Phillip. 1976.
 Padilla, C. Rene, *Theology and Mission*, David J. Hesselgrave Eed, Baker Grand Rapids, 1978.
 Tippett, A. R. edit, *God, Man, and Church Growth*.
 Wagner, K. Peter, *Frontier of Mission Strategy* Chicago, Illusion, Moody Press, 1972.
Your Church can grow Glendale, California: Regal Books, 1976.